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46호 【루게 제 25189호】 주제 105 (2016)년 2월 15일 (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광명성-4》호발사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을 환영하는 연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을 위하여 2월 13일 성대한 환영연회를 마련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연회에 참석하시었다.

김영남 동지, 황병서 동지, 박봉주 동지,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 박영식 동지, 리명수 동지, 양형실 동지, 김현홍 동지, 박범기 동지, 오수용 동지, 김평해 동지, 김영철 동지, 최부일 동지, 로두철 동지, 조연준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연회에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이 초대되었다.

연회장에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성공을 열렬히 축하한다!》, 《《광명성-4》호발사에서 성공한 기세로 종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중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 백두산대국의 자주적권리와 무진막강한 국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는데 공헌한 위훈자들을 축하하시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주정부의 길에 바친 애국충정을 값높이 평가하시여 평양에 초청해주시고 대들두고 길이 전할 영광을 안겨주시었으며 오늘은 성대한 연회까지 마련해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자리를 같이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에 부받치는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세계가 지켜보는

나가지!》라는 구호가 드리워져있으며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가 세워져 있었다.

연회장앞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주체의 위성강국으로 빛내여가시는 백두산대국의 강대성과 존엄의 상징이시며 자주와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었다.

가운데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대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위대한 우리 국가의 자존과 권위, 강용한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개를 광활한 우주만리에 보란듯이 울려세운 우주정부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당과 국가, 군대를 대표하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근 적대세력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를 질식시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는 복잡한 정세속에서 력사적인 당 제7차 대회를 눈앞에 두고 나라의 운명과 조국의 존엄을 걸고 지구관측위성을 발사할것을 결심한것은 전파대기 애국자, 우리 당에 충실한 붉은 과학전사들을 굳게 믿었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당은 동지들을 믿고 동지들은 당을 굳게 믿는 혈연적인 믿음의 원수님께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 해주신 동시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수명옹위전이었다고 말씀하시었다.

우주정부의 길은 단순한 과학의 길이기에 혁명의 길, 자주의 길이었으며 우리의 평화와 자주권을 빼앗으려는 적대세력들과의 치열한 계급투쟁인 동시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수명옹위전이었다고 말씀하시었다.

우주정부의 길은 단순한 과학의 길이기에 혁명의 길, 자주의 길이었으며 우리의 평화와 자주권을 빼앗으려는 적대세력들과의 치열한 계급투쟁인 동시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수명옹위전이었다고 말씀하시었다.

